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경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확정!
		배포일자	2023년 5월 19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수질하천과	담 당 자	• 생활용수팀장 윤혜용 ☎440-3631 • 담당자 이승아 ☎440-3634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해 53개 항목 검사

- 먹는샘물 무작위 수거해 수질검사·표시기준·유통기한 적정 여부 등 확인 -
- 부적합 제품 즉시 회수·폐기 조치하고,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통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 지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중 부적합 제품의 유통·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검사는 매분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, 점검 당일 대형점포 및 도·소매점 등에 진열 중인 모든 먹는샘물을 무작위 유상 수거해 표시기준, 유통기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.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53개 항목 수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즉시 회수·폐기 조치하고, 해당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·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정기적(분기별)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시민들이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유통 중인 먹는샘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한편, 지난해와 올해 1분기에 실시한 먹는샘물 수거검사에서 123개 제품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 등을 만족했다.



